

“제제와 함께 미리 알아보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제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안나 언니  
언니에겐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다

아이가 어릴 땐  
어떻게든 혼자서  
버텨 나갔지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나 언니는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 자녀를 홀로 보살피며 지쳐가고 있었다

썩그랑

죄송합니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내꺼!!

씨익  
씨익

나가는 건  
안돼...

아냐!!

가!가!

나도 늙어 가는데  
나보다도 큰 아이를 돌보자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이를  
돌봐주면 좋겠다...

두통

우울증

관절염

위염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으시는데..



활동지원사도 있고  
성인이 되면 시설에  
자녀를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활동지원사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이가 안전하거나  
도전적 행동이 적어야지만  
쉽게 이뤄져요

현재 저희 시설 상황에선  
도전적 행동이 너무 심해  
이용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



활동  
지원사



사회적 시스템과 서비스가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여전히 그들은 24시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는 없을까..

지역사회에서 보장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떡하지...



언니 여기 봐요

내년도에 시행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낮에는 지원인력과 함께 본인이 원하는  
활동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밤에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지원주택에서 지원인과 생활합니다

위  
잉



생  
각



딸  
각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잘 적응하고 나아감으로써

원하는  
활동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  
훈련



적응력  
향상

일상생활 유지  
지역사회 참여  
증가



주중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족들은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가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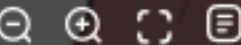
맘 편히 나만을 위한  
식사가 얼마 만인지..



주말엔 원가족에 복귀한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합니다

잘 갔다 왔니?

이번 주말엔  
뭐 할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행**

이젠 언니만의  
고민이 아니야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동행** 을 시작합니다